

한국의 대학도서관 전거DB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박홍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honspark@keris.or.kr

이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jwlee@keris.or.kr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대학도서관 목록 전산화 개요
3. 한국 대학도서관 전거DB 구축 및 운영 현황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거DB 구축 및 서비스 현황
5. 대학도서관 전거DB 구축을 위한 과제
6. 결론

1. 들어가며

이 글은 한국 대학도서관에 있어 전거DB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대학도서관의 전거DB는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전거DB를 구축·활용하기 위하여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현재 전거DB 현황의 배경이 되는 한국 대학도서관 목록의 전산화 과정 및 문제점을 다루어보고, 한국 대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거DB 현황을 소개하겠다. 그리고 한국 대학도서관 전거DB 구축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 글이 한국 대학도서관 전거DB에 연관된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인 모습은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대학도서관 목록 전산화 개요

한국 대학도서관의 전산화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4년제 대학도서관은 현재 거의 전산화를 끝마친 상태이다. 도서관 전산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록의 전산화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학도서관 소장 단행본 목록의 80-86%가 전산화되어 대학도서관 목록의 전산화는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다 (교육부, 2000). 이 장에서는 한국 대학도서관 목록 전산화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도서관 목록 전산화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개별 대학도서관이 기존에 작성한 카드 목록을 MARC으로 소급 변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마땅히 참고할만한 국내서 표준 목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학도서관의 협력을 통하여 목록 전산화를 추진할 중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각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MARC 데이터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는 NACSIS가 제공하는 참조목록데이터를 자관 서지정보 소급 변환에 이용할 수 있었던 일본 대학도서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 대학도서관이 개별적으로 목록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도서관간, 목록작성자간 고유한 목록작성 관행이 나타났으며, 또한 대학도서관간 데이터의 교환 및 공동 이용을 크게 염두에 두지않아 표준화 문제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조재인, 한혜영, 2000).

한국 대학도서관 목록의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목록 전산화 과정뿐 아니라 목록규칙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목록규칙인 한국목록규칙(Korean Cataloguing Rules; 이하 KCR)은 1964년에 초판이 발간되었고, 2년 후 수정판이 발행되었다. 그리고 17년 후 1983년에 KCR3가 발행되었고, 7년 후인 1990년에 KCR3가 소폭 수정된 KCR3.1가 발행되었다. KCR3는 단행본에 대한 기술부만 수록하고 있고,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1991년 한국자동화목록형식(KORMARC Format)-단행본용과 이를 위한 기술규칙인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 단행본용 기술규칙’이 1991년 발행되었다.

KORMARC 형식에서는 기본표목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선정하고 그것을 어떠한 형식으로 기술했던 상관없이 이미 선정된 기본표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규칙에서도 “기본표목은 목록규칙에 의해 부여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목록규칙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정옥경, 1996)

KCR3에 표목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목록규칙이 KCR과 ‘KORMARC 기술규칙’이 각각 별도로 개정 및 제정되면서 한 국가내에 이원화된 규칙이 존재하는 점이 한국 편목규칙 표준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록규칙이 선거데이터의 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목록데이터는 선거DB 구축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록규칙과 목록의 표준화 문제는 한국이 국가 선거DB를 구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한국 대학도서관 선거DB 구축 및 운영 현황

양질의 선거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많은 대학도서관이 선거DB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한국에는 3개의 대학도서관(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이 자관용 선거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선거DB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pp. 103-105). 현재 이들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선거DB는 선거통제의 대상이 다르고, 또한 통제의 수준이 다르다. 이는 자관의 정책과 선거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원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선거형의 선택 또한 다르다. 예를 들어, 서양인명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글표기를 선거형으로 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은 영문표기를 선거형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일본인명과 중국인명의 선거형으로 영문표기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한글표기를 선거형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pp. 110-111).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선거DB를 구축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

대학 선거데이터의 통합 가능 여부, 선거형의 선정 여부 등 주요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한국의 선거DB 현황>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건수		약 186,000건	약 390,000건	약 140,000건
사용포맷		KORMARC(국내서) USMARC(국외서)	KORMARC	자체포맷
선거통제 대상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서명/ 전체 표목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주제명 (인명, 단체, 지명)/ 전체 표목	개인명, 단체명, 총서명/ 참조 가지는 표목
선거형	한국인명	한글표기	한글표기	한글표기
	일본인명	영문표기	한글표기(한글음)	한글표기(현지음)
	중국인명			
	서양인명	영문표기	영문표기	영문표기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거DB 구축 및 서비스 현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현재 155개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통합하여 540만건의 데이터를 소장한 종합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NII(구 NACSIS, www.nii.ac.jp)가 1999년 3월 현재 구축한 679개 대학 487만건에 비교하면 중복된 데이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말한 목록의 표준화 및 질의 문제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학도서관이 목록DB를 구축할 때 참조할 선거DB가 없었다는 것과는 연관이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의 선거DB는 개별 대학도서관 목록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현재 운영 중인 종합목록의 형태 및 운영 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LC 전거데이터를 구매하여 대학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 대학도서관에서 구축한 전거데이터는 시범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전거DB를 구축하고자 현재 준비 중이다. 우선 전체적인 현황 파악 및 계획 수립을 위해 “학술정보 전거DB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에 관한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를 외부 용역과제로 수행하였다. 이 과제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전거DB 현황 및 특성, 전거DB 구축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거시적 조망을 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전거DB를 운영 중인 대학과 주요 대학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5. 대학도서관 전거DB 구축을 위한 과제

전국의 대학도서관이 목록 구축 및 검색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전거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주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5.1. 대학별 전거DB 현황 및 특성조사

현재 한국의 주요 3개 대학도서관이 자체 전거DB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대학도서관의 전거데이터가 70만건이 넘는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국가 전거DB 구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DB를 통합하여 하나의 DB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대학별 전거데이터의 수준, 전거형 등에 관한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통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물론 전거DB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축된 데이터의 특성을 전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5.2. 제 규칙의 정비

전거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목록규칙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목록규칙은 오래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규칙이 상세하지 않다는 의견을 목록 실무자가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이에 맞춰 전거데이터 관리 규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3. 시험DB 구축 및 시스템 정비

기 구축된 전거데이터의 특성 파악과 제 규칙이 정비된 후, 데이터를 시험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전거시스템이 있으나, 개별 대학 데이터의 통합, 소급 데이터의 입력, 신규데이터의 생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실질적인 시험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이다. 이는 새로 정비되어야 할 목록규칙, 전거데이터 관리규칙 등 제 규칙의 수용과, 기존 데이터의 통합 시 필요한 기능의 수용 등이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거DB의 운영 형태를 시스템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5.4. 전거DB 운영체제 구축

전거DB는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학도서관 협력의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목록을 작성하는 기관이 대학도서관이기 때문에 전거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에 대학도서관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전거데이터의 운영 및 이용 형태를 그 역할과 권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했는데, 이는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종합목록의 운영체제와 유사한 형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pp 118-120). 우선 5-10개관으로 구성된 “가”군의 도서관은 새로운 전거레코드의 입력과 타 회원 대학도서관이 입력한 전거레코드의 검증을 담당한다. 즉 “가”군의 도서관이 전거DB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100개 내외의 “나”군 도서관은 새로운 전거레코드의 입력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 레코드는 “가”군 도서관의 인증을 받은 후 DB에 추가된다. 기타 도서관인 “다”군 도서관은 전거레코드의 다운로드만 가능

하다.

5.5.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 연계 방법 결정

서지레코드에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데이터가 전거레코드에 의해 관리되고 전거레코드가 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는 식별번호 등의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 연결에 있어 네가지 방법을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pp. 77-78)

- 1) 서지파일과 전거파일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서지파일을 작성할 때마다 전거파일을 참조
- 2) 서지파일과 전거파일을 별도로 구축하지만 서지파일의 표목 입력 시 전거형을 자동적으로 입력
- 3) 전거파일을 서지파일의 일부분으로 구축
- 4) 서지파일과 전거파일이 직접 접속되어 구축되는 형태로 서지파일의 표목부분에 전거파일의 제어번호만을 기록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의 연계 형태는 대학도서관 목록의 형태와 종합목록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연계의 수준 또한 대학도서관 목록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목록 데이터의 향후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가 목록의 형태 및 운영체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학도서관과 연관 기관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도서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전거통제는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제적인 데이터의 교환 및 통합검색에도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한국의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거DB의 구축을 단시일 내에 이루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이다. 전거DB의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1) 현재 대학도서관에 구축되어 있는 목록의 형태, 2) 전거데이터 형태에 맞춘 대학도서관 목록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종합목록 데이터의 소급 정비 가능 여부, 3) 소급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한 기관이 두가지 형태의 목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목록의 전산화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 학술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전거DB의 구축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00). 2000년 대학도서관 정보화현황 조사
- 정옥경. (1996). “목록규칙에 있어서의 표목부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3), 85-108.
- 조재인, 한혜영. (2000). “일본과 한국의 대학도서관 종합목록시스템 운영 현황 비교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 NACSIS와 KERIS를 중심으로”. 도서관문화, 41(3), 37-45.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0). 학술정보 전거DB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탁과제